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0호 【루게 제25223호】 주체105(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인 육군대장 조경철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



처럼 해안에 불의적인 방법으로 기습상륙하여 공격으로 이전하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반상륙방어연습이 진행되였다.

비행대의 상륙준비타격에 이어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상륙과들과 해안 방어지대중심에 공중강습한 《적》직승기륙전대들을 소멸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7군단관하 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가슴이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잘 준비된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이 열적의 포신을 들고있기에 그 어

중장 김명식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윤영식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대장 리용주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 조선인민군 제7군단장인 육군중장 리태섭동지,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보병사단장인 육군중장 송영진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군단장들과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연습을 참관하시였다.

연습은 실용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 연습을 통하여 해군과의 협동작전밑에 남반부작전지대에서 활동하게 될 최후전

선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의 신속한 남반부작전수역으로의 해상기동과 기습적인 상륙작전전투조직 및 지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해안차단물극복능력을 높여주는것과 함께 현재 설치된 해안차단물들의 견고성을 확충하고 대책을 세우으로써 해상공격 및 해안방어작전계획을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습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수상함선들과 지척병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항공사단 아래 추격기들, 조선인민군 제7군단 포병구분대들, 조선인민군 제108기계화

보병사단의 일부 력량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부러 연습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먼저 상륙연습이 진행되였다.

공병정찰조가 상륙구역정찰과 파괴를 위해 은밀히 침투하여 상륙구역에 설치한 각종 차단물을 폭파하는 전투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지척병구분대들과 제108기계화보병사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이 승선한 고속함정들이 해안으로 신속히 접근

기동하며 달려드는 《적》무장직승기들에게 대한 직승기사냥전을 벌였다.

《적》들의 반상륙방어행동을 제압하며 해안에 기습상륙한 전투원들이 해안차단물들에 대한 제거, 해체전투행동을 벌리며 각종 전차, 지휘소들을 습격하고 상륙근거지를 확보하는 한편 상륙함들에서 하선한 탱크, 장갑차들이 포병구분대들이 개설한 통로를 따라 《적》중심으로 신속히 공격성공을 확대하는 전투행동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부대들의 과감한 전투행동을 보시고

면 직상륙집단도 우리의 해안에 절대로 달라붙지 못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연습은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이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뿜긴다면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위력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로 미제침략자들과 악근해괴력역적패당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고야말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쪽을 표시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전투의 승리는 적해안방어시설물들을 단숨에

극복하는것과 함께 아군의 상륙을 불허하려는 적들의 반작용을 어떻게 제압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작전전투방안들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숙련하기 위한 실용적훈련을 강화하며 해군수상함선들의 무장장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상륙집단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자면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제적인 해안방어에 관한 전법사상의 요구대로 부대, 구분대들을 부단히 훈련 또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전 군인들은 지나거나 오직 적들과 싸울 생각, 농뿔을 단애에 요정내고야말 결심으로 가슴 불래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 군인들을 뽕뽕 나는 일당백싸움군들로, 백두산호랑이들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강화함으로써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적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밟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도를 받은 인민군장병들은 불계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울 실장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만단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으로써 서울해방작전, 남반부해방

작전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이 땅에서 일단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 혁명무력의 보부상전은 미세와 박근혜피의역적배당이 감행한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때까지 순간도 멈춤없이 강도높게 벌여질 것이며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는 박근혜《정권》에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70일전투장의 전역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위력한 사상전의 포성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경제선동공세

자강도당위원회에서 도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치도록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있다.

홍유청년3로발전소, 배음의 천리길학생소년건설장 등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과 경제발전공정, 전철화합공장, 자강새에너지발전 등 도인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심림복구전투장에서는 대공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성식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방술을 맛보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기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입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모아 당제 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동으로 임하는 중요대상건설장에서 혁명의 목소리, 총돌격의 나팔소리를 세차게 울리도록 하였다.

특히 도당위원회에서는 선동

원, 직외강연장사, 5호당당선원들이 대공의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있다.

도적으로 2만 수천명의 선동원, 5호당당선원들이 70일전투에서 최상의 로력적성, 최고의 생산실적을 내도록 선전선동사업을 세차게 벌여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직외강연장사들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이 화성식정치사업에서 큰 공을 맡아하도록 힘써 펴며주고있다. 도적으로 1000여명의 당선원들과 직외강연장사들이 위대한 수명일들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발전소, 탄광,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상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에서도 방축선전차량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발동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방축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다. 경제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 있다.

지난 8일 가족과 함께 가정

에서 준비한 지원물자를 안고 경제발전공정을 찾은 경제선의 당 책임일군은 현장에서 노래도 부르고 일도 하면서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시당 책임일군의 모습을 보며 공정의 로동자들은 당앞에 걸다던 열렬한 선동사업을 무조건 끝낼 열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화천시의 당책임일군은 정전간계단식발전소지구에 건설하는 그물유리야외장전설장에 나가 《가라리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당제 7차대회까지 이어갈정설을 끝내기 위한 열렬적으로 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전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은 형인 유격대의 정치일군들처럼 위대성도서들과 전투포용자, 석감, 꽃이 들어있는 배낭과 송화총, 폭탄 등 선전선동수단들을 손도 못잡고 자진하여 입고 힘동농장들에 나가 정치사업도 벌이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농사치비에 노는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포전정치사업과 실천적모범에 고무된 장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

동농장 농장원들은 거름실어내기에서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실적을 내고있다.

홍신, 송원, 우시, 초산군당위원회 일군들도 방축선전열, 송향총기대를 가지고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을 하며 사회주의 소호전의 제 1세대 제 1선동조를 지켜낸 농민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시, 군당위원회의 면면한 작전일군도 선동원, 직외강연장사, 5호당당선원, 기업소출신 당원들의 역할이 이상히 높아지고 있다.

만포시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이 선전선동활동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신사적인 관심을 돌리는 한편 기업소출신 당원들에게도 적극 벌리도록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펴고있고 있다. 시안의 600여명에 달하는 선동원들과 기업소출신 당원들은 만포시당위원회에서 힘동농장 농사치비에 뛰어넘는 힘동농장에서 경제선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천시당위원회에서는 직외강연장사들로 집중전선전대를 꾸리고 최일일용출생선동조

를 구성, 2가공직장의 야간전투부대까지 대대적으로 꾸렸다. 현장에 전개된 방축선전열에서 혁신의 새소식을 전하는 방축열의 흥분은 컸은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뛰어들어 전수원들을 축하하는 기업소출신 당원들의 노래소리도 전투열을 불태웠다.

작업을 벌여보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전투과고 하면 뛰어들어도 분위기가 중요했었다.

화성식경제선동으로 70일전투를 벌여나가고 있는 당위원회 일군들의 결심이 굵었다는 생각이 드는 날 열을 지어 구내를 순회하는 교

고 동 대 로 한 문

2가공직장의 야간전투부대까지 대대적으로 꾸렸다. 현장에 전개된 방축선전열에서 혁신의 새소식을 전하는 방축열의 흥분은 컸은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뛰어들어 전수원들을 축하하는 기업소출신 당원들의 노래소리도 전투열을 불태웠다.

작업을 벌여보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마음은 초조하였다. 전투과고 하면 뛰어들어도 분위기가 중요했었다.

화성식경제선동으로 70일전투를 벌여나가고 있는 당위원회 일군들의 결심이 굵었다는 생각이 드는 날 열을 지어 구내를 순회하는 교

구성공작기계공장 당위원회에서

로, 다시 단조직장으로 열을 올리는 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초진상 방축선전열이 기업소출신 당원들이 벌이는 일부 선전열은 이렇지 적적해보였던 것이다.

일리는 크지 않지만 그곳도 엄연히 70일전투의 주요소초들이 아닌가.

다들 당원회의 일군들의 회의가 열렸다.

야간전투가 벌어지는 공정의 그 어느 소초를 막고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뻗어 올릴 수 없게 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토의를 거듭하던 끝에 좋은 안이 나왔다. 비생산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과 교동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즉석에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날 밤 11시, 전날까지도 한적하던 공정의 외전 소초에서 교동대를 꾸려나가는 열의가 넘쳐났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뒤이어 울리는 목소리, 땅과 리소리...

열을 지어 구내를 순회하는 교동대의 앞에는 일군들이 서있

었다. 기발을 흔들어 교동조를 선전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차게 화답하는 교동대원들의 함성이 일터를 울려퍼지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교동대원들의 생활터는 나날이 뚜렷해지고있다.

교동대는 야간전투가 벌어지는 그 어느 현장에나 찾아가 화성선동을 벌일 수 있어 좋다. 교동대원들이 대공의 심장을 울려주는 호소성이 강한 교동조를 한껏 고조시키고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동대원들과 전투원들사이의 교감이 짙어지는 것이다. 교동대원들이 일터마다에 불려 《총부들, 수고합니다.》 하고 화성선동 선전열을 온 손 흔들어 답례하며 반가움을 표시한다. 그리고 《모두 다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등의 교동조를 제때면 전투원들이 화답하는 데 어떤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교동대원들이 대공의 심장을 울려주는 위력한 경제선동열풍을 보여준다.

오늘의 70일전투를 추동하는 경제선동의 화성성이 바로 이것이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진격의 나팔수, 능숙한 정치활동가

안주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

안주시에서 가던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는 것이 화성에서 활동하는 당선전일군경제선동대원들인데 찬사이다.

주제 64 (1975)년 3월 1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정신에 전신전투군당(당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 때 예고나던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대원을 보아주시면서 같이 평가해주셨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동대의 소박하고 순수해도 심장의 고향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뉘뉘고 온몸이 혁명열, 무쟁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70일전투가 선포된 그날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필장적동무와 비서 김재덕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현장에 내려가 경제선동을 벌여줄 것을 시에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당원들의 열의를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한전전환 완성전 50건의 완성한 정치사업자료를 내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에출단 장차기들의 도움으로 공업종목을 하나하나 선정한 다음 대본을 완성한 즉시 형성하기 위한

전투장의 화불봉

면적은 1000㎡, 처리할 나뭇가지는 3000㎡, 기간은 한주일!

이것은 70일전투기간 중 장군님 유혈투쟁에 새로 건설할 양어장의 공사였었다. 게다가 양어장용땀까지 하고 파낸 나뭇가지는 전부 논으로 운반해야 하였다.

조선에 비해 방대한 이 공사의 완공기일을 놓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 책임일군은 밤 10시가 넘은 지만 화불봉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람들은 공사기일을 사용이나 앞당길 비결이 당책임일군의 화불봉에 있다고 한복소리로 말한다.

허 일 무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명중포화

중화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색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입피와하는 그의 심정이 리워되어있는 초급당위원이 김주원 동무는 쉽게 단정하지 않았다.

이제는 사람들의 말마에 번드 오르면이제는 김동무를 좋게 했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 생활현황을 물어주었다. 김동무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어주었다. 김동무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어주었다. 김동무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어주었다.

여러 가지 시제품을

공정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 해결해 주어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농기제시제품생산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시제품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신원협동농기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총성의 70일전투기간에 총합발달이기에, 강냉이과포기, 강냉이 종합발달을 비롯 한 11종의 농기제시제품을 생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매일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제비인 막동일동무를 비롯 한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재와 공구조달대책을 앞세우고 기술

새형의 농기제시제품을 위한 힘찬 투쟁

수백종의 부속품들을 정밀가공하여 보장하고 주물제작의 로동자들은 주물소제 생산에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제비장, 장비장, 장비를 비롯한 모든 직장의 로동자들도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력으로 수놓아고 있다.

종합적인 토양관리기제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토양관리기제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할 수 있는 농용농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기제시제품을 새롭게 연구개발하였다.

총성에는 트랙토르운전수 4명, 고대당 같이와 세베치기, 수평고구기과 이랑짓기용 수차로 2~5.2정보밖에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농기제를 리용하면 4명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수평고구기과 이랑짓기용 수차로 2~5.2정보밖에 못하였다고 한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사상사업이 열풍처럼

70여대의 먹이가공설비를

남시축산기계공장에서

농기제부속품생산에 큰 힘을

강제 트랙토르부속품공장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총성의 70일전투를 돌고있는 남시축산기계공장에서 새로 지어 축산기제설정에 보내줄 70여대의 먹이가공설비제작을 위해 열을 올리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둥을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강적업의 열을 높이고 제단적업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가지 지구장비들을 새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실업에서도 경제의 제정에 따르는 각 부속품들의 제정을 정확히 확정해내고있다. 설계상 분리되어있던 먹이가공설비와 동력장치를 결합시키는 등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먹이가공설비를 혁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생산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조전보장과 자재보장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공정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먹이가공설비들을 당제 7차대회 전으로 세로지구 축산기제설정에 보내줄 높은 목표에 힘차게 뛰어넘어 다그치고있다.

마르스는 각 부속품들의 제정을 정확히 확정해내고있다. 설계상 분리되어있던 먹이가공설비와 동력장치를 결합시키는 등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먹이가공설비를 혁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생산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조전보장과 자재보장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공정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먹이가공설비들을 당제 7차대회 전으로 세로지구 축산기제설정에 보내줄 높은 목표에 힘차게 뛰어넘어 다그치고있다.

여러 가지 시제품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새형의 농기제시제품을 위한 힘찬 투쟁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정평군농기제 작업소에서



